

# 漢文과 韓國史 教育 要素의 相補性에 對한 探索

李 敦 錫\*

## <目次>

I. 들어가는 말	1. 漢字 文化領域
II. ‘漢文’과 ‘韓國史’의 教育 目標 比較	2. 語氣漢字語領域
III. ‘漢文’과 ‘韓國史’의 教育 內容 要素 間 相補性	3. 漢文 텍스트의 活用領域
	IV. 나오는 말

## <국문 초록>

최근 통합, 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등장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한때 통합수업, 통합논술 등의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중등학교 교육이 각 교과 영역에 따라 학습되기 때문에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 같다. 한국과 같은 수평적 교과목의 구성은 학습자가 각 교과 간 학습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과 간 상보성, 혹은 교과 간 통합 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한문’과 ‘한국사’ 교과목은 각각의 다른 교과 영역이지만 두 교과의 교육 내용 요소가 밀접하므로 교과 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보성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2009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문 교과의 목표와 한국사 교과의 목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문과 한국사는 보편적 교육 목표가 매우 유사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ehstjr@hanmail.net

하여 각 교과 간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사 교육에서 한문의 어휘(한자어), 문화의 교육 내용이 도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문 텍스트의 객관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종합적 탐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통합, 융합, 한문교육, 한국사교육, 상보성

##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중등학교 교육은 각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과’란 새로운 경험의 효과적인 解釋을 위하여, 혹은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체계화된 지식의 한 영역 또는 분과들을 말한다. 교과는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도구가 되는 도구 교과와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내용 교과, 심정의 표현에 관한 교과인 표현 교과, 직업·가정·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 교과 등으로 분류한다.<sup>1)</sup> 예를 들어, 국어 교과는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기초적인 언어 습득을 중요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도구 교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어교육의 다양한 교육 내용인 문법, 화법, 문학 등을 학습한다는 측면에서는 내용 교과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도구가 되는 도구 교과는 그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에서도 연관성이 커서 종합교과라도 일컬어진다.

‘漢文’ 교과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 형성 및 한문 독해와 관련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내용 교과라는 교과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언어 層位學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어의 맨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고유어 층위이

1) 김규선, 『국어과 교육의 원리』, 학문사, 2000, p.89 참조.

며, 그 위에 덮인 것이 漢字語 층위이다. 그리고 19세기 말 이래 일본에서 들여온 한자어 층위, 외래어와 한자어가 결합 층위로 구분될 수 있다.<sup>2)</sup> 즉, 한국어는 고유어 층위 위에 漢字語 층위가 덮인 구조적 특징으로 한국어의 언어생활에서 한자·어휘[漢字語]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문’ 교과와 교육과정 목표에서도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구 교과와 역할이라는 교과와 특수성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문 전적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다른 교과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한문’ 교과와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최근에 등장한 초·중·고 한자교육 부활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문’ 교과와 제재가 되는 한문학 작품은 표기수단을 한자로 하였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그 중 역사적 사실을 담은 기록이나 제왕의 사적을 기록한 실록과 같은 기록물은 ‘한문’ 교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한국사’ 교육 내용 중 19세기 이전의 내용은 ‘한문’ 교과와 제재와 유사하며, 각각의 다른 교과 영역이지만 두 교과와 교육 내용 요소가 밀접하므로 교과 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보성을 모색할 수 있다.

상보성 이론은 덴마크 출신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1927년 9월 이탈리아의 코모 호수에서 열린 볼타[Count Volta]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물리학회 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빛의 이중성을 설명하면서 상보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원리는 물리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현상과 사회현상 등에게까지 광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직의 원리이다. 서로 모순되고 대립하여 보이는 두 요소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는 인식론적 해석 원리가 곧 상보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상보성 이론은 모순되고 대립하여 보이는

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자교육과 한자정책에 대한 연구』, 역락출판사, 2005, p.19.

3) 윤숙자, 「상보성원리에 의한 경영혁신 모델 제시」,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호, 한국경영정보학회, 2009, p.553.

두 요소뿐만 아니라 비슷한 요소를 가진 각각의 교육 영역에서 교육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한문’과 ‘한국사’의 교육 내용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사’의 주된 교육 내용은 바로 ‘漢字’라는 표기 수단을 썼고 ‘漢字’, ‘語彙(漢字語)’, 나아가서 ‘漢文 텍스트’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보성은 각각의 두 요소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한문 교과와 한국사 교과 중 어느 한 교과가 교육적 우위를 점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두 교과서에서 비슷한 교육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충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II. ‘漢文’과 ‘韓國史’의 教育 目標 比較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에 의하면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보통 교과로 사회 교과군의 일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문 I·II도 한국사와 같은 보통 교과로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군의 일반 과목이다. 일반 과목이라는 위상은 같으나 한국사는 201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는 한문 과목과 차이를 가진다.<sup>4)</sup>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사와 한문의 교육 목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사와 한문의 교육적 상보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나.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4) 교육인적자원부d,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2, p.18, “④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중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반드시 이수한다.”

- 다.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라.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 마.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sup>5)</sup>

한문과의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학습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한문 독해가 있다. 이는 내용 교과로서 한문 교과를 바라보는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전통문화 이해,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과 같은 것은 한문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중등학교 교과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목표이며 다른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 교과로서 보편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보편적 목표가 다른 중등교과와 상보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한국사 과목과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음 한국사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가.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동과 문화 성격을 아우르면서 한국사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한다.
- 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거 역사의 산물임을 이해하되, 각 시대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 다. 우리 역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한국사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음을 이해한다.
- 라. 우리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종합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키운다.

5) 교육인적자원부, 『한문과 교육과정』, 2012, p.19.

마. 우리 역사를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현대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sup>6)</sup>

한국사도 내용 교과로서 한국사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 과정을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현대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중등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보편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중등교과와 다르게 한문과 한국사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목표를 살펴보면, 한국사의 “나. 우리나라 역사 전개 과정을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한다.”는 한문의 “마.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이해”와 연관된다. 또한, 한국사의 “다.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짐”은 한문의 “마. 한자문화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같은 맥락이며, 한국사의 “라. 우리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은 한문의 “다.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유기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교류, 한문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종합적인 탐구 활동, 다양한 문화적 성격의 이해 등은 두 교과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교육 요소가 된다. 즉, 위와 같은 두 교과의 보편적 목표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요소 간 상보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漢文’과 ‘韓國史’의 教育 內容 要素 間 相補性

#### 1. 漢字 文化領域

한문 기록은 文言文으로서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배

6) 교육인적자원부a, 『사회과 교육과정』, 2012, p.97.

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한자문화권에서는 한자라는 공통의 표기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록을 남겼으며, 그 기록 속에는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 등 다양한 문화가 내포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문화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sup>7)</sup>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간상이 ‘다’항에 추가되었다. 추가된 내용은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문화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의 변화로 인해 각 교과목은 다양한 문화의 교육 요소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주목해 할 것은 바로 문화교육 요소 성취기준이다. 성취기준이란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의 실질적인 근거로서,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을 말한다. 즉,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 교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좀 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sup>8)</sup> 따라

7)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3], 2011, p.1.

8) 교육인적자원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 수준 - 초등학교 5~6학년』, 2012, p.3.

서 한문과 한국사의 성취기준을 분석해보면 교과 간 교육 내용의 상보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한문 교과의 ‘한자 문화’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선인들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긍지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sup>9)</sup>

(1)은 한문 학습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며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2)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배경 아래 형성된 한자문화권의 문화 상식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교류 증진이다. 한국사의 성취기준도 한문과의 성취기준과 유사하다.

(2)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 정비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대외 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려 사회의 다원성과 개방성에 대해 파악한다. 시기는 고려의 성립부터 조선 건국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sup>10)</sup>

한국사는 한자문화권이라는 용어 대신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역시 한자문화권의 일부였으며 경제·문화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 교류 증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성취기준에서 한문은 ‘漢字’를 표기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자문

9) 교육인적자원부b, 『한문과 교육과정』, 2012, p.19.

10) 교육인적자원부a, 『사회과 교육과정』, 2012, p.99.

화권과 한국의 한문학 작품 속에 있는 선인들의 지혜와 전통문화 등에 초점을 두고 성취기준을 조직하였다면, 한국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의 적극적인 모습과 다원성과 개방을 성취 기준으로 조직하고 있다. 두 성취기준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문의 한자문화권의 학습을 통해 다원성과 개방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 한국사의 성취기준인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한자문화권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한문 교과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漢字 字源의 풀이 학습 요소를 통해 한국사의 교육에 상보성을 가질 수 있다.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가) **선사 문화**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파악한다.
- (나) 고조선과 초기 **철기 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의 사회 모습과 풍속을 파악한다.<sup>11)</sup>

위의 내용은 한국사의 성취기준이다. ‘(가) 선사 문화’를 학습할 때 한문 교과의 자원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父’자를 학습할 때 다음과 같은 교육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부’는 손에 돌도끼를 잡고 있는 모양의 글자이다. 첫 획은 돌도끼, 나머지 세 획은 손의 모양이 변한 것이다. 돌도끼로 전쟁하고 농사도 짓는 사람은 바로 사나이, 아버지라는 뜻으로 쓰인다.<sup>12)</sup>라는 것을 학습하면 한국사 성취 기준인 선사 문화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자의 변천 과정인 甲骨文, 金文, 小篆, 隸書 등의 학습을 할 때 한국사의 성취 기준인 “(나) 고조선과 초기 철기 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의 사회 모습과 풍속을 파악한다.”라는 것을 보충한다면 한자의 변천 과정의 이해가 더욱 쉬울 것이다. 즉, 한국사 교육의 철기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한문 학습에

11) 교육인적자원부a, 『사회과 교육과정』, 2012, p.99.

12) 한은수, 『한자 자원 교육론』, 전통문화연구회, 2009, p.321.

배경적 지식이 될 수 있다. 한문 교과에서 한자의 형·음·의 교육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면 한국사의 교육 요소를 통해 철기 문화에 대한 통합 학습을 통해 철기, 청동기 등과 같은 시대에 대한 문화를 학습하는 것은 결국 한자 변천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형의 변화가 필기구의 변화에 따른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語彙[漢字語]領域

앞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어는 고유어 층위 위에 漢字語 층위가 덮인 구조적 특징으로 한국어의 언어생활에서 한자·어휘[한자어]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 교과를 한문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는 내용 교과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 교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속에 들어있는 어휘들이 추상적이거나 개념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는 과거 선인들의 기록물이 핵심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중등의 다른 교과에 비해서도 많은 한자 어휘들이 나타난다.

1988년 12월 당시 국어연구소에서 중학교 교과서 어휘 분석연구를 하였다. 그 중 한국사와 관련된 역사 교과서 어휘를 추출하였는데 역사 교과서 관련 어휘는 총 7,427개이다. 총 어휘를 자모순과 빈도순으로 제시하였는데 그중 자모 ‘ㄱ’ 어휘 중 빈도수 10 이상이 되는 어휘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모 ‘ㄱ’ 어휘에서 빈도 10 이상이 되는 어휘는 161개이다. 161개의 어휘를 고유어, 어휘[漢字語], 고유어+어휘[漢字語]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자모 ‘ㄱ’ 어휘 중 빈도수 10 이상 고유어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가다	101	걸치다	39	그리고(부사)	89
가르치다	16	갓(의존명사)	272	그리다	15
가운데	30	겨레	31	그리하다	67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가져오다	16	겪다	37	그림	21
가지(여러~)	62	고을	13	기르다	21
가지다	79	고치다	16	기울이다	10
갖추다	25	곧(부사)	12	기틀	11
같다	69	곳	65	길(道)	19
같이(부사)	23	굳히다	13	깨닫다	10
거느리다	12	그(관계대명사)	270	피하다	16
거두다	18	그(대명사)	60	꾸준히	11
거듭되다	11	그것(지시대명사)	20	끝나다	19
거의(부사)	16	그들(대명사)	77	끼치다	17
거치다	19	그러나(부사)	108		

자모 ‘ㄱ’ 어휘에서 빈도수 10 이상 되는 고유어는 총 41개로 전체 163개 어휘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고유어 중에서 명사는 ‘가운데’, ‘겨레’, ‘고을’, ‘곳’, ‘그림’, ‘기틀’, ‘길’로 7개였다.<sup>13)</sup> 그리고 부사는 ‘같이’, ‘거의’, ‘곧’, ‘그러나’, ‘그리고’와 같이 5개였고 대명사는 4개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23개는 동사였다. 고유어 41개 중 명사는 17%에 불과하였다.

<표 2> 자모 ‘ㄱ’ 어휘 중 빈도수 10 이상 어휘[漢字語]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가야(伽倻)	15	개화(開化)	27	고분(古墳)	16	관심(關心)	13
가장(家長)	36	거란(契丹)	29	고조선(古朝鮮)	25	관직(官職)	25
각(各)	37	거족적(舉族的)	14	고종(高宗)	21	관청(官廳)	19
각각(各各)	11	건국(建國)	23	곡식(穀食)	16	광복(光復)	23
각종(各鐘)	13	건물(建物)	13	공(功)	11	광복군(光復軍)	22
각지(各地)	47	건설(建設)	16	공격(攻擊)	10	교(敎)	11
간(間)	21	결과(結果)	14	공납(貢納)	12	교류(交流)	14
간도(間島)	12	결국(結局)	17	공동(共同)	10	교육(教育)	91
간섭(干涉)	20	경제(經濟)	89	공민왕(恭愍王)	12	교종(敎宗)	11

13) 독립되지 못하고 형식상으로만 쓰이는 의존명사인 ‘가지(여러~)’, ‘것’은 명사에서 제외했다.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감정(感情)	11	경제적(經濟的)	49	공산(共産)	23	교통(交通)	11
갑신정변(甲申政變)	10	경주(慶州)	11	공산군(共産軍)	11	구국(救國)	10
강제(強制)	15	경찰(警察)	11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	22	구석기(舊石器)	13
강화도(江華島)	18	계기(契機)	16	공업(工業)	11	구살(口賞)	11
개(個)	10	계몽(啓蒙)	26	공화국(共和國)	25	국가(國家)	183
개경(開京)	19	계속(繼續)	14	과거(科學)	30	국경(國境)	15
개발(開發)	13	계승(繼承)	10	과정(過程)	11	국권(國權)	11
개요(概要)	26	계획(計劃)	16	과학(科學)	19	국내(國內)	38
개인(個人)	11	고구려(高句麗)	136	관계(關係)	50	국내외(國內外)	17
개항(開港)	17	고대(古代)	19	관료(官僚)	39	국력(國力)	20
개혁(改革)	55	고려(高麗)	205	관리(官吏)	40	국민(國民)	79
국방(國防)	16	국사(國史)	11	국어(國語)	11	국왕(國王)	21
국제(國際)	13	국제적(國際的)	10	국초(國初)	18	국토(國土)	21
국학(國學)	14	군(郡)	12	군대(軍隊)	31	군사(軍事)	30
궁중(宮中)	11	권력(權力)	11	귀족(貴族)	47	근대(近代)	50
근대적(近代的)	22	근대화(近代化)	20	금(金, 나라)	12	금속(金屬)	11
기관(機關)	51	기구(機構)	13	기록화(記錄書)	12	기반(基盤)	24
기본(基本)	11	기술(技術)	39	기운(氣運)	11	기지(基地)	10
기회(機會)	17						

자모 ‘ㄱ’ 어휘에서 빈도수 10 이상 되는 어휘[한자어]는 총 109개로 전체 163개 어휘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관형사 ‘각(各)’, 부사 ‘각각(各各)’은 1개씩 있었으며, 의존명사는 ‘간(間)’, ‘개(個)’로 2개였다. 관형사, 부사, 의존명사 4개를 제외한 105개는 모두 한자 어휘 명사였다.

<표 3> 자모 ‘ㄱ’ 어휘 중 빈도수 10 이상 고유어+어휘[漢字語]

어휘	빈도	어휘	빈도
가하다(加~)	10	계승하다(繼承~)	11

어휘	빈도	어휘	빈도
강력하다(強力~)	18	고취하다(鼓吹~)	10
강하다(強~)	11	공격하다(攻擊~)	19
강화되다(強化~)	10	관하다(關~)	13
강화하다(強化~)	22	극복하다(克服~)	15
개혁하다(改革~)	11	계속되다(繼續~)	33
계속하다(繼續~)	13		

자모 ‘ㄱ’ 어휘에서 빈도수 10 이상 되는 어휘(한자어)는 총 13개로 전체 163개 어휘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접두어 ‘加~’, ‘強’, ‘關~’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 어휘 명사와 고유어가 결합한 형태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명사도 모두 9개인데 모두 한자 어휘 명사였다.

위 세 표는 역사 관련 교과서의 어휘는 고유어보다 어휘[漢字語], 어휘[한자어]+고유어가 73%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명사는 고유어 7개, 어휘[한자어] 105개, 어휘[한자어]+고유어 속에 포함된 것이 9개였다. 이는 명사 121개 중에서 94% 이상이 한자가 결합된 것임을 보여준다.

명사가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언어 범주의 하나로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깊다. 언어 주체가 세계 속에서 ‘개념’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과정은 명명행위로 귀결된다.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인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명명하는 방식은 ‘이름’을 붙이는 작용을 통해 드러난다. 범주화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행위로서 대상을 관찰, 구별, 분류하는 일련의 사고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이를 기호로 표현한 것이 ‘명사’ 부류이다. 즉 명사는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인간 인지 발달에 중요한 범주화의 과정이 반영된 문법 요소이다.<sup>14)</sup> 또한, 명사에는 개념적 어휘가 많이 있다. 개념적 어휘는 한자로

14) 고춘화, 「의미 속성을 중심으로 한 명사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51집, 국어교육학회, 2012, p.202.

逐字 풀이하였을 때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 밑에 전문영역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표제어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 『표준국어대사전』 전문영역 역사 어휘[漢字語] 비율<sup>16)</sup>

주제	고유어	비율	외래어	비율	한자어	비율	漢+외	비율	Total
역사	136	1.52%	222	2.48%	8,329	93.13%	44	0.49	8,943
	漢+고	비율	고+외	비율	고+漢+외	비율			
	161	1.80	18	0.20%	33	0.37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영역 표제어 중 역사와 관련한 어휘를 분석한 결과 고유어의 경우 1.52%, 외래어 비율이 2.48%였다. 한자어 비율은 93.12%였고, 한자가 결합한 외래어나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 외래어가 결합된 비율은 2.66%로 한자가 활용되고 있는 비율이 95.78%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와 관련된 역사 등의 교육 내용은 한자, 어휘[한자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사 교육의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어휘[한자어]는 다양한 교과에서 기초적이고 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간 상보성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 3. 漢文 텍스트의 活用領域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 7]의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 교육과정에 있는 ‘한국사’의 교육 목표 중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양했다. 따라서 재론하지는 않겠다.  
 16) 허철, 「국어사전 등재 어휘를 통해 본 어휘 構成 分析과 漢字의 造語 능력 조사」, 『동방한문학』 제37집, 동방한문학회, 2008, p.313.

- 가.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동과 문화 성격**을 아우르면서 한국사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한다.
- 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거 역사의 산물임을 이해하되, 각 시대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 다. 우리 역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한국사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음을 이해한다.<sup>17)</sup>

위의 교육 목표는 한국의 역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켰다는 사실과 이를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문’ 교과서의 텍스트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漢文’ 교과서에 수록된 申師任堂의 漢詩를 살펴보자.

慈親鶴髮在臨瀛	하얗게 머린 센 어머니는 임영[강릉]에 계시는데
身向長安獨去情	나는 홀로 장안[한양] 향해 가는 심정
回首北村時一望	고개 돌려 때때로 북촌을 바라보니
白雲飛下暮山靑	흰 구름 나는 아래 해 질 녘의 산이 푸르구나 <sup>18)</sup>

위 漢詩는 신사임당이 늙으신 친정어머니를 홀로 두고 서울 시택으로 떠나는 마음을 읊은 것이다. 위 漢詩, ‘長安’이라는 지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長安’은 원래 ‘唐’나라 수도인데 ‘朝鮮’의 수도인 ‘漢陽’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과 중국의 문화가 거의 동질화되어 있었고, 문화 형태나 관념 형태에 있어서는 두 나라 사이에 거의 隔違가 없을 정도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唐’나라 수도인 ‘長安’이 곧, ‘朝鮮’의 수도인 ‘漢陽’과 지역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동질성이 일반적으로 퍼져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漢詩가 지어질 때는 동아시아 공통 문자인 漢字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중국의

17) 교육인적자원부a, 『사회과 교육과정』, 2012, p.97.  
 18) 송제소 외 4인, 『고등학교 한문』, 다락원, 2010, p.113.

지명, 인명 등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sup>19)</sup> 즉, 위 漢詩를 통해 한국사 목표 중 ‘다.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짐’과 같은 교육 요소를 漢詩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성취기준도 다양한 한문 전적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3)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나) 조선 시대 **신분제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 양반 문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생략)

(바) **실학, 서학, 동학** 등의 사상 및 **사회 개혁론**을 사회 변동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sup>20)</sup>

‘신분제의 재편’, ‘조선 전기 양반 문화’를 학습할 때 김만중의 『謝氏南征記』와 정도전의 『佛氏雜辨』 등과 같은 텍스트를 활용하여 조선을 건국하면서 위정자들은 유교사상을 기반을 두고 본처와 첩을 구분하여 신분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구체적 사실과 불교 숭상에 대해 유학의 틀에서 불교이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면 성취기준 달성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실학과 관련된 텍스트 및 허균의 『豪民論』 등의 활용을 통해 사회개혁론과 실학사상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한문과는 한국사의 다양한 배경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장 독해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사 교육도 한문 문장 해석에 치중된다면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량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 자료로써 활용해야 한다.

한문 전적 자료 활용은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최근에 화두가 된 독도관련 영유권에 대한 교육에서도 한문 전적은 활용도가

19) 이돈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일견」, 『교육연구』 58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p.91.

20)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 2012, p.97.

높다. 『世宗實錄地理志』와 『東史約』에 있는 “二島, 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此島, 高麗得之於新羅, 我朝得之於高麗, 又非日本之地.”<sup>21)</sup>라는 문장을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객관적 텍스트를 활용한다면 학습자가 더욱 객관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V. 나오는 말

최근 통합, 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등장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한때 통합수업, 통합논술 등의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중등학교 교육이 각 교과 영역에 따라 학습되기 때문에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 같다. 한국과 같은 수평적 교과목의 구성은 학습자가 각 교과 간 학습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과 간 상보성, 혹은 교과 간 통합 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 모형이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문 교과와 한국사 교과의 교육 내용 요소 간의 상보성을 탐색해 보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2009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문 교과의 목표와 한국사 교과의 목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문과 한국사는 보편적 교육 목표가 매우 유사하여 각 교과 간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사 교육에서 한문의 어휘[한자어], 문화의 교육 내용이 도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의 교육 내용을 학습할 때에 한문의 어휘[한자어] 학습이 기초가 되어 있다면 한국사 개념어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한자 혹은 어휘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한국사 교육 요소와 상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한문 텍스트의 객관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

21) 진제교 외 3인, 『중학교 한문』, 장원교육, 2012, p.181.

고 비판하는 종합적 탐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한문 전적을 통해 다양한 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과 간 상보성은 각 교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상보성을 빙자한 교과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參考 文獻>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3], 2011.
- 교육인적자원부a, 『사회과 교육과정』, 2012.
- 교육인적자원부b, 『한문과 교육과정』, 2012.
- 교육인적자원부c,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 수준 - 초등학교 5~6학년』, 2012.
- 교육인적자원부d,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2.
- 송재소 외 4인, 『고등학교 한문』, 다락원, 2010.
- 진재교 외 3인, 『중학교 한문』, 장원교육, 2012.
- 
- 고춘화, 「의미 속성을 중심으로 한 명사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51집, 국어교육학회, 2012.
- 김규선, 『국어과 교육의 원리』, 학문사, 2000.
- 윤숙자, 「상보성원리에 의한 경영혁신 모델 제시」,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호, 한국경영정보학회, 2009.
- 이돈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 교과서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일견」, 『교육연구』 58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자교육과 한자정책에 대한 연구』, 역락출판사, 2005.
- 한은수, 『한자 자원 교육론』, 전통문화연구회, 2009.
- 허 철, 「국어사전 등재 어휘를 통해 본 어휘 構成 分析과 漢字의 造語 능력 조사」, 『동방한문학』 제37집, 동방한문학회, 2008.

## Abstract

*Study of Complementarity between Classical Chinese  
and Korean History Education / Lee Don Suk\**

The various theories related to Integration and Convergence are recently emerged. This theories is influencing to the educational arena as an integral class, integral essay and so on. This phenomenon seems to be resulted from the idea which the curriculum areas could not be organically connected with each other because the Korean secondary education is studied according to each subject areas. The horizontal formation for school subject in Korea has caused a problem that the students should connect with each learning contents of the curriculums organically by themselves. This problem causes the emergence of new formation of the teaching model like the complementarity or integral classes between each curriculums. The Classical Chinese works as the subject o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curriculum are written by Chinese character and the contents are also various. In these works, historical records or true for deeds of the Lord is closely related to “Chinese classical” curriculum.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n History” before the 19th centuries are similar to the subject on “Chinese classical” curriculum as well as are the different curriculum area for each other. However, we can seek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hinese Character and Korean History Education because both of them are closely related and supportable to each other.

**【Key words】** Integration, Convergence, Chinese classical Education,  
Education of Korean History, Complementarity

투고일 : 5월 30일, 심사일 : 6월 5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Andong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ehstjr@hanmail.net